



“누가 우릴 늙었다 했는가”

프랑스 지단이(오른쪽) 6일 펼쳐진 포르투갈과 4강전에서 전반 33분 페널티킥을 성공한 뒤 팀 동료 앙리와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佛-伊 ‘운명의 만남’

10일 새벽 3시 대망의 결승

‘비브 라 프랑스(Vive la France) vs 포르차 아주리(Forza Azzuri)’ ‘레 블뢰’ 프랑스와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가 오는 10일 오전 3시(이하 한국 시간) 2006 독일월드컵축구 결승이 열리는 베를린 올림피아 슈타디온의 주인공으로 운명적인 만남을 갖는다.

프랑스는 1998년 이후 8년 만에 두 번째, 이탈리아는 1982년 스페인월드컵 이후 24년만에 네 번째 우승 도전이다.

양팀은 역대 전적에서 7차례 만나 3승2무2패로 프랑스가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월드컵에선 모두 네번 만나 두 번씩 승리를 나눠 가졌다.

프랑스는 이번 대회에서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갈수록 베테랑들이 힘을 내며 ‘아트사커’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다.

에릭 아비달, 릴리앙 튀랑, 윌리엄 갈라스, 윌리 사놀로 구성된 포백(4-back)은 두 골 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6경기에서 단 1실점만 하고 있다. 조별리그 미국전에서 크리스티안 차카르도의 자책골이 유일한 실점으로 상대 공격수에게는 한 번도 골문을 허락한 적이 없다.

‘빙장수비(카테나치오)의 핵’ 알레산드로 네스트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파비오 칸나바로, 마르코 마테라치가 버티는 포백은 전방을 입증하듯 견고함을 잃지 않고 있다.

미드필드에서는 ‘마에스트로’ 지네딘 지단(프랑스)과 프란체스코 토티(이탈리아)가 정면 대결을 벌인다. 이탈리아는 독일과 준결승에서 발군의 활약을 펼친 안드레아 피롤로가 중원에 가세해 힘을 더하고 있다.

공격진에서는 티에리 앙리(프랑스)에게 무게가 실린다.

이탈리아는 선발 타깃만 루카 토니를 축으로 알베르트 질라르디노, 알레산드로 델피에로 등 풍부한 ‘조커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개최국 홈어벤지지를 끝까지 살려내지 못한 ‘전차군단’ 독일과 40년만에 월드컵 4강에 오른 포르투갈이 아쉬움 속에 오는 9일 오전 4시 슈투트가르트에서 2006독일월드컵 3위 자리를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앙리 ‘명석 깔고’ 지단 ‘재주 부러’

프랑스, 포르투갈 꺾고 결승행

‘아트사커’ 프랑스가 포르투갈을 꺾고 결승에 올라 이탈리아와 2006 독일월드컵 축구대회 우승컵을 다투게 됐다.

‘레 블뢰 군단’ 프랑스는 6일(한국시간) 새벽 독일 뮌헨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2006독일월드컵 포르투갈과 4강전에서 전반33분 티에리 앙리(아스날)가 유도한 페널티킥을 지네딘 지단(레알 마드리드)이 결승골로 연결해 1-0 승리를 거뒀다.

이번 독일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게 되는 프랑스의 주장 지단과 포르투갈의 주장 피구 간의 맞대결로 전 세계 축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날 준결승전은 예상과 달리 팽팽한 접전 속에 페널티킥으로 승부가 갈리면서 다소 싱겁게 끝났다.

전반 32분 플로랑 말루다의 패스를 받은 앙리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볼을 잡고 돌파를 하는 순간 포르투갈의 수비수 히카르두 카르발류가 원발로 앙리의 발을 걸었다.

지체없이 주심의 휘슬이 울렸고 페널티킥 사인이 떨어졌다. 공을 잡고 페널티킥 지점으로 나선 것은 ‘아트사커’의 대명사 지단.

지단은 잉글랜드와 8강전 승부차기에서 무려 3번의 킥을 막아낸 히카르두와 마주선 뒤 강한 오른발 슛으로 왼쪽 골 그물을 갈랐다.

히카르두가 방향을 예측하고 몸을 날렸지만 볼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무결점 ‘짚물 수비’ ‘아트사커’ 원동력

박지성에 유일하게 필드골 허용

프랑스의 무결점 ‘짚물 수비’가 우승컵 탈환의 희망을 밝히고 있다.

보통 ‘프랑스 축구’를 얘기할 때면 ‘중원 사령관’ 지단을 중심으로 한 미드필드진과 프리미어리그 최고 공격수 티에리 앙리(아스날)가 떠오르지만, 이번 독일월드컵에서 프랑스가 결승에 오를 수 있었던 진정한 원동력은 바로 완벽에 가까운 정도로 단단한 수비진이었다.

왼쪽부터 에릭 아비달(리옹)-윌리엄 갈라스(첼시)-릴리앙 튀랑(유벤투스)-윌리 사놀(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어지는 프랑스 포백(4-back) 수비진이 이번 대회에서 허용한 골은 단 2골.

이 가운데 필드골은 지난달 19일 조별리그 G조 2차전에서 박지성이 터트린 골 하나 뿐이었다.

당시 박지성은 0-1로 뒤지던 후반36분 조재진이 문전으로 넣어준 헤딩 패스를 향해 쇄도하며 발끝을 볼에 살짝 갖다 대 골키퍼 키를 넘기는 감각적인 슛으로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던 프랑스 골문을 뚫었다.

이를 제외하고 프랑스는 스페인과 16강전에서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허용한 것 이외에 필드골은 전혀 허용하지 않았다.

호나우두와 호나우지뉴, 아드리아누, 카카 등 ‘마법의 4중주’라 불리는 브라질의 가공할 만한 공격진도 8강전에서 프랑스의 철벽 수비에 막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쓸쓸히 집을 싸야 했다.

이날 경기에서도 통계상으로는 프랑스는 포르투갈에 일반적으로 밀렸는데도 완벽한 수비 덕분에 승리를 따낼 수 있었다. 포르투갈이 12개(유효 5개)의 슈팅을 때린데 반해 프랑스는 5개(유효 4개)에 그쳤으며 볼 점유율은 59대 41, 코너킥은 8대 3으로 뒤졌다. 하지만 수비에서만큼은 프랑스가 포르투갈보다 한 수 위였다. 포르투갈이 18개의 반칙을 하며 프리킥 찬스를 내준 반면 프랑스는 11개의 반칙에 그쳤고 경고도 수비진에서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우린 아직 갈 길이 남았다”

■ 도메네크 프랑스 감독

“아직 만족할 수 없다. 갈 길이 남았다”

레몽 도메네크(54) 프랑스 축구대표팀 감독은 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뮌헨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축구대회 준결승 포르투갈전 승리 후 “아직 만족할 수 없다”며 세리머니는 베를린에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메네크 감독은 일단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매우 자랑

스러웠다”면서 “포르투갈은 좋은 팀이다. 우리가 준비한 플레이를 하기 쉽지 않았다. 운이 좋아 우리가 골을 넣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실 수도 없다. 앞으로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탈리아와 결승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그는 또 “나는 종종 우리의 목표를 베를린에 가는 것이라고 말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베를린에서 우승 축하를 벌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승리할 자격 충분”

■ 스킨라리 포르투갈 감독

“프랑스는 승리할 만한 자격이 충분했다”

브라질 출신의 루이스 스킨라리(58) 포르투갈 축구대표팀 감독은 자신의 월드컵 본선 13연승 기록과 함께 2회 연속 대회 우승 꿈까지 모두 잇어간 프랑스 대표팀에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는 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뮌헨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 독일 월드컵축구대회 4강 프랑스전에서 0-1로 패해 결승행이 좌절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 부었다. 두 팀 모두 경기 내내 대등했다”면서 “하지만 골을 넣지 못한다면 승리하지 못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선수들은 아주 훌륭했다. 결승에 오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실패했다”면서 “선수들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포르투갈에 불리한 판정이 나올 때마다 벤치를 박차고 나와 거센 항의를 하곤 했던 스킨라리 감독은 주심의 판정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 6일 새벽 독일 뮌헨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 4강전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경기에서 승리한 프랑스의 지단을 클럽팀 동료이자 선의의 경쟁자였던 피구(왼쪽)가 축하해 주고 있다. /연합뉴스